

# 좌절 상황에서 정신병질 및 자기에 성격특질이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sup>†</sup>

이 상 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임상심리사

장 혜 인<sup>‡</sup>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공격성이 발현되는 서로 다른 촉발상황(계획실패, 자아위협)에서 정신병질 및 자기에 성격특질이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의 수준을 예측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공격성이 유발되는 좌절 상황을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정보의 포함 여부에 따라 계획실패와 자아위협 상황으로 구분하여, 각 상황에서 정신병질 및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공격성의 수준 및 유형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192명을 대상으로 정신병질, 자기에 그리고 자존감을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평가하였다. 그 후 참여자들을 두 조건에 무선할당 하여 계획실패 또는 자아위협 상황 중 하나를 묘사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였고, 시나리오를 읽은 후의 각 참여자의 공격성을 측정하였다. 이때 보다 객관적인 공격성 측정치를 얻기 위하여 공격성 질문지와 함께 행동으로 공격성을 평가하는 반응속도 경쟁게임(Competitive Reaction Time Task)을 사용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높을수록 계획실패와 자아위협 상황 모두에서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자기에가 높을수록 자아위협 상황에서 언어적 공격성만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신병질 및 자기에 성향이 높은 개인에게서 공격성이 촉발되는 심리적 기제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성격특질 및 촉발맥락을 고려하여 공격성 유형 및 수준을 예측하고,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지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정신병질, 자기에,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sup>†</sup> 본 연구는 이상아(2015)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장혜인, (03063)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Tel: 02-760-0490, E-mail: hichang@skku.edu

현대사회로 접어들어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공격성이 주요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되었고 다양한 매체들과 연구자들의 관심이 공격적인 개인들에게 집중되었다(양지은, 장문선, 소준현, 곽호완, 2011).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개인은 일상생활에서 부적응을 겪을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줄 수 있다(Werner & Crick, 1999). 공격성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강조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서수균, 권석만, 2002).

공격성이란 타인을 즉각적으로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는 다양한 행동을 의미한다(Anderson & Bushman, 2002). Buss와 Perry(1992)에 의하면 공격행동은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공격성이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는 개인의 공격성을 촉발하는 기제가 다를 수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Jones & Paulhus, 2010).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소수에 그치므로 본 연구는 공격성을 예측하는 상황적 요인과 개인의 성격요인, 그리고 공격성 발현양상을 함께 고려하여 공격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과도한 공격행동이 점점 문제시 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직면한 지금, 공격행동의 발현양상을 구별하여 연구하는 것은 보다 정교해지는 개인의 공격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체적 공격성은 완력 혹은 신체에 손상을 가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정의되며 깨물기, 꼬집기, 발로 차기, 물건을 부수는 것, 위협적인 몸짓 등이 포함된다(Buss & Perry, 1992; Dodge, Coie, & Lynam, 2006). 언어적 공격성이란 타인에게 심리적인 고

통을 주기 위해 개인의 자기개념을 공격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타인과의 빈번한 의견 충돌, 논쟁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Buss & Perry, 1992; Infante, 1995).

공격성의 예측요인 및 기제에 대한 연구의 하나의 흐름은 정신병리적인 관점에서 공격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공격성은 반사회성 성격장애, 간헐적 폭발 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등의 병리와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다(서수균, 권석만, 2002; 이지영, 황순택, 2011; Bobadilla, Wampler, & Taylor, 2012; Moeller, Dougherty, Lane, Steinberg, & Cherek, 1998; Werner & Crick, 1999). 그 중에서도 정신병질과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공격성과 관련해 연구가 이루어져 온 대표적인 성격 특질에 속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정신병질과 자기애의 공격성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구해 왔기에 두 성격특질이 공격성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양상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정신병질 및 자기애를 평가하고 그들의 공격성을 측정함으로써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며, 두 성격이 공격행동 및 공격성을 촉발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정신병질(psychopathy)은 Cleckley(1976)에 의해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악의 있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고, 정서적으로 냉담하며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self-absorption) 특징이 있다(Cason, 1948; Patrick, Cuthbert, & Lang, 1994). Hare(1991)에 따르면 이들은 웅장한 자기상을 가지고 있고 거만함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어 타인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 정신병질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쉽게 흥분하고 충동적이어서 신체적인 싸움에 자주 연루되고(Cleckley, 1976; Paulhus & Williams, 2002), 동시에 냉담하고 공감능력이 낮아 타인을 향해 주저하지 않고 언어적으로 공격성을 표출한다(Hare, 1991). 이러한 성향을 고려할 때 정신병질이 높은 사람들은 공격행동을 신체적 및 언어적인 방법 모두를 사용하여 발현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행동을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예외적으로 Coyne와 Thomas(2008)는 정신병질 성향이 높을수록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이 둘 다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공격성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온 또 다른 대표적인 성격특징으로 자기에(narcissism)를 꼽을 수 있다. 자기에성 성격장애란 자기중심적이고 대인관계에서 군림하려 하며, 타인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성격 특징을 말한다(Cain, Pincus, & Ansell, 2008; Emmons, 1987; Levy, 2012; Thomaes, Bushman, De Castro, & Stegge, 2009). 자기에적 성격특질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거만한 태도와 특권의식에서 비롯되는 착취적인 행위 및 대인관계 양상을 보인다(김영운, 이은진, 김범준, 2011). 자기에 성향이 높은 공격성과 관련된다는 주장은 여러 연구들에서 지지되어 왔다(길주현, 오경자, 2008; 서수균, 권석만, 2002; 이은진, 김영운, 김범준, 2010).

자기에가 높은 사람들은 매우 긍정적인 자기상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자존감을 높다고 보고

하는 경향이 있으나(Baumeister, Smart, & Boden, 1996) 실제로는 부정적인 자기상을 가지며 불안정한 자존감(unstable self-esteem)을 지닌다는 제안이 있었다(Rhodewalt, Madrian, & Cheney, 1998). 따라서 자기에가 높은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그들의 자아를 위협받게 되면 불안정한 자존감을 타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높은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자기에 성향과 높은 공격성 간의 관계는 반복적으로 지지되었으며(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서수균, 권석만, 2002; Baumeister, Bushman, & Campbell, 2000) 특히 자기에가 높은 사람은 언어적인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수균, 권석만, 2002; McCann & Biaggio, 1989). 자기에가 높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위협받을 때 자신의 자기상에 위협을 가한 상대의 자기상을 위협함으로써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실추된 자기상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서수균, 권석만, 2002; McCann & Biaggio, 1989). 이들은 충동적인 성향은 낮으므로(Jones & Paulhus, 2010) 신체적으로 공격행동을 나타내기보다는 손상된 자기상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어를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정신병질과 자기에성 성향이 높은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가 축적되어 왔으나, 정신병질 및 자기에가 높은 사람들이 어떤 내적 기제를 거쳐 공격성을 보이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알려진 바가 적다. 정신병질과 자기에성 성격장애는 공통적으로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 병리이지만 모든 촉발 상황에서 공격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Baumeister et

al., 2000; Blackburns & Lee-Evans, 1985).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성격특질에 따라 공격성을 촉발하는 차별적인 상황 및 자극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좌절감을 경험하는 상황을 제시하여 공격성이 발현되는 맥락에서 성격특질에 따른 개인차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좌절이란, 과제 완수의 실패 또는 희망하는 활동에의 참여 실패를 말하며,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Anderson & Bushman, 2002). Dollard, Miller, Doob, Mowrer와 Sears(1939)의 좌절-공격 가설에 따르면 공격행동은 언제나 좌절경험의 결과로 발생하며, 좌절경험은 항상 어떤 형태의 공격성을 일으킨다. 본 논문은 Kuppens와 Van Mechelen(2007)의 연구에 근거하여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정보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좌절 상황을 ‘계획실패’와 ‘자아위협’으로 세분화하였다.

계획실패 상황은 예기치 못한 계획의 실패로 보상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며, 이는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 다른 상황은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자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며, 기존 연구에서도 자아위협으로 명명되어 왔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자아위협이라 부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촉발하는 계획실패 또는 자아위협 상황에서 개인의 성격특질에 따라 공격성이 다르게 발현되는지를 확인하려 한다.

연구자들은 좌절 상황에서 정신병질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공격성이 어떻게 발현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Blackburn & Lee-Evans, 1985; Blair, 2010; Cornell et al., 1996; Patrick,

2005). 정신병질은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성격 차원으로 가정되어 왔으며, 정신병질의 특징 중 하나인 충동성은 좌절 상황에서 높은 공격성을 유발하는 특징이다(Blackburn & Lee-Evans, 1985; Patrick, 2005). Blair(2010)는 정신병질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좌절 상황에 취약하며 쉽게 공격행동을 드러낸다고 밝힌 바 있다. 정신병질 성향이 높은 사람은 충동적이며 예기치 못하게 보상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취약하여 공격행동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므로(Falkenbach, Poythress, & Creevy, 2008) 계획실패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동시에 그들은 웅장한 자기상을 가지고 있어, 자기상이 위협되는 상황에서도 공격행동을 나타낼 것으로 여겨진다. 즉 정신병질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좌절에 속하는 계획실패와 자아위협 상황 모두에서 높은 공격성을 나타낼 것이라 추측된다.

자기에 성향 역시 높은 공격성과 관련된다는 주장이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지지되어 왔지만(길주현, 오경자, 2008; 이은진 외, 2010; Bobadilla et al., 2012; Mohan, Singh, & Singh, 2009) 자기에가 높은 사람들은 특정 상황에서만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ushman & Baumeister, 1998; Horton & Sedikides, 2009; Martinez, Zeichner, Reidy, & Miller, 2008; Twenge & Campbell, 2003). Bushman과 Baumeister(1998)는 자기에가 높은 사람들의 공격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자아위협모형(threatened egotism model)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에 따르면 자기에가 높은 사람은 매우 긍정적인 자기상을 가지고 있어 높은 자존감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들의 자존감은 불안정하여 이를 안정시키

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찬사를 요구하고, 남들이 그들의 긍정적인 자기상을 인정해주지 않거나 부정하면 자아에 위협을 느끼게 되어 자기상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격행동을 나타내게 된다.

자기에 성향이 자아위협 상황과 관련하여 꾸준히 연구되어 온 것에 반해, 다른 좌절 상황에서 자기에가 높은 사람이 공격성을 나타낼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Besser와 Priel(2010)은 좌절을 자아위협과 목표성취실패 상황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는데, 자기에가 높은 사람들은 자아위협 상황과 목표 성취실패 상황 모두에서 높은 분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에가 자아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격성과 연관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요인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선행연구의 자아위협 및 목표성취실패 상황은 공통적으로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었다(Kuppens & Van Mechelen, 2007).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개인에 대한 평가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좌절 상황에서 자기에가 높은 사람들이 공격성을 나타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한편 Jones와 Paulhus(2010)는 자아위협 모형을 확장하여, 자기에가 높은 사람이 평가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높은 공격성을 나타내는지 확인하였다. 그들은 공격성을 촉발하는 상황을 자아위협과 신체적위협으로 구분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자기에가 높은 사람은 자아위협 상황에서 높은 공격성을 보였으나, 신체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공격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은 개인의 자존감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평가정보가 포함되지 않

은 조건에서는 공격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종합하자면, 정신병질과 자기에 성격특질은 각각 높은 공격성과 관련이 있으며, 정신병질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좌절 상황에 처하면 공격행동을 나타내지만, 자기에가 높은 사람들은 주로 자아가 위협 당하는 상황에서만 공격행동을 보인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공격성을 촉발하는 상황을 구별하지 않고 연구해 왔기에 성격특질에 따라 공격성을 촉발하는 차별적인 상황 및 기제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촉발하는 상황을 계획실패 및 자아위협으로 구분하여 공격성의 발현 양상을 살펴보고, 정신병질 및 자기에 성향과의 관계를 분석하려고 한다. 나아가 선행연구는 대체로 공격성의 하위유형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정신병질 및 자기에 성격특질을 보이는 개인들이 보이는 공격성 행동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제안(Jones & Paulhus, 2011)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정신병질 성향이 높을수록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이 둘다 높다는 선행연구들이 있다(Coyne & Thomas, 2008; Falkenbach et al., 2008). 자기에적 성향과 공격행동의 발현양상을 신체적,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살펴본 연구는 많지는 않으나, 일부 연구는 신체적 공격성보다 언어적 공격성과 더욱 상관이 있는 것을 밝혔다(서수균, 권석만, 2002; McCann & Biaggio, 1989).

더불어 본 연구는 자존감의 효과를 통제하여 성격특질과 공격행동의 순수한 관계를 살펴볼 것

이다. 자존감이 정신병질 및 자기에 성향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지지되어 왔고 자존감이 공격성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서수균, 권석만, 2002; Baumeister et al., 2000), 성격특질이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히 살피기 위해서는 자존감의 효과를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정신병질이 높을수록 계획실패와 자아위협 상황 모두에서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자기가 높을수록 계획실패보다 자아위협 상황에서 언어적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심리학 교양 수업을 듣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연구에 참여하는 대가로 수업에서 실험 참가 점수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는 총 192명이며, 이 중 여성은 104명(54.2%), 남성은 88명(45.8%)이었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1.5세( $SD=2.29$ )였다.

### 연구절차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해 소개한 후, 연구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은

정신병질 및 자기에성 성격검사지, 그리고 Rosenberg 자존감 척도에 응답하도록 지시받았다. 이후 연구 참여자는 무선 배정되어 계획실패 혹은 자아위협 상황 중 하나를 묘사한 시나리오를 제공받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다. 계획실패 상황은 오랫동안 준비한 기말 과제를 제출하기 직전에 예기치 못한 usb 포트의 고장으로 인해 과제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묘사하였다. 자아위협 상황은 대인관계에서 거부되는 상황을 대학생이 겪을 법한 이야기로 각색하였다. 시나리오의 내용은 자신이 친하다고 여겼던 동아리 친구로부터 우연히 자신에 대한 험담을 듣게 되는 내용이었다(Besser & Priel, 2010; Kuppens & Van Mechelen, 2007).

참여자들은 시나리오를 읽을 시간을 충분히 제공 받았으며, 시나리오를 읽을 때는 가능한 생생하게 그 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하며 읽도록 지시받았다. 참여자들이 시나리오 상황에 충분히 몰입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작점검을 실시하였다(Kuppens & Van Mechelen, 2007). 실험 참여자들은 7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시나리오로 유발된 정서를 평가하였다. 시나리오가 계획 실패로 인한 좌절감을 유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상황이 얼마나 좌절스럽다고 느끼는가?’ 등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아를 위협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는 ‘이 상황이 나의 자존감을 위협하였는가?’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었다. 각 조건 간 조작점검 문항의 점수 차이를 확인한 결과, 계획실패 상황에서는 계획실패로 인한 좌절, 자아위협 상황에서는 자아에 대한 위협감을 유의하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t(190) = 5.72, p < .001$ .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에게 자신이 시나리오 속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상상하도록 지시한 후 그들의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을 평가하였다. 이 중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한 왜곡이 특히 우려되는 신체적 공격성은 질문지와 함께 컴퓨터로 실시한 행동과제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참여자들이 수행을 마친 뒤,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를 종료하였다.

### 측정도구

**자기보고식 정신병질 검사지(The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SRPS).** SRPS는 Levenson, Kiehl과 Fitzpatrick(1995)이 개발한 척도로, 본 논문에서는 이수정과 공정식(2007)이 번안하고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문항에는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정당화된다',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작하기를 좋아한다'와 같은 문항들이 사용되었다. Cronbach's  $\alpha$  값을 떨어뜨리는 4개의 문항을 제외시킨 후 나머지 22개의 문항에서 내적 합치도는 .85로 나타났다(이수정, 공정식, 2007).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6이었다.

**자기에성 성격검사지(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NPI는 Raskin과 Hall(1979)이 개발한 척도로, 국내에서는 한수정(1999)에 의해 40문항이 번안되었으며 이후 정남운(2001)에 의해 다시 32문항으로 축소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남운(2001)이 번안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문항에는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면 세상은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나는 내가 받아 마땅한 대접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와 같은 자기에성 성격을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자기에 성향을 나타내는 문장과 그렇지 않은 내용의 문장 중 하나를 강제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자기에적인 내용의 문장을 선택한 개수를 합산하여 자기에 성향의 높음을 평가하였다. 정남운(2001)의 검사에서 내적 합치도는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2로 확인되었다.

**Rosenberg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 이 검사는 자존감을 측정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Rosenberg, 1965). 본 연구에서는 전병제(1974)가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이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2로 나타났다.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 - Korean version: AQ-K).** Buss와 Perry(1992)는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 그리고 적대감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공격성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된다. 이 척도는 국내에서 권석만과 서수균(2002)에 의해 번안되었

다. 이 검사의 내적 합치도는 .86이었으며, 각 하위척도의 경우 신체적 공격성 .74, 언어적 공격성 .73, 분노감 .67, 적대감은 .76이었다.

한편 Farrar과 Krcmar(2006)는 공격성 질문지의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시나리오로 촉발된 참여자의 공격성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공격적 기질(trait aggression)을 평가하는 질문지의 문항을 현재 느끼는 공격적인 감정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하였을 때, 하위척도인 신체적 공격성( $\alpha=.89$ ), 언어적 공격성( $\alpha=.88$ ), 분노( $\alpha=.80$ ), 적대감( $\alpha=.92$ )은 모두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구성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Farrar과 Krcmar(2006)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권석만, 서수균, 2002)의 문항을 시나리오를 읽은 후 공격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수정된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문항 중 신체적 공격성은 '나는 지금 화가 나서 누군가를 치고 싶은 충동을 통제하기 어렵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언어적 공격성은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충돌을 보일 수 있다' 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이 각각 .85, .84로 나타났다.

**반응속도 경쟁게임(Competitive Reaction Time: CRT).** 공격성, 특히 신체적 공격성이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으로 왜곡된 자기보고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질문지에 더하여 반응속도 경쟁게임(CRT)을 통해 공격성을 측정하였다. 이는 Taylor(1967)가 고안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CRT R&P 3.4.2 version(Bushman & Saults, 2006)이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다른 연구 참여자와 게임을 하게 될 것이며,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방보다 버튼을 빠르게 눌러야 한다고 지시받았다. 참여자는 게임에서 이겼을 경우 상대방이 듣게 될 소음의 강도와 지속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매 회마다 게임에서 질 경우에는 이어폰을 통해 백색소음을 듣는 벌칙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안내 되었다. 그러나 사실 게임의 승패는 실험자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있으며, 참여자들이 버튼을 누른 속도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12번의 승, 13번의 패를 경험하게 되며 그 중 첫 게임에서는 무조건 패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참여자와 경쟁하는 상대방 역시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다. 본 게임에서 소음의 강도를 높게, 그리고 소음의 지속기간을 길게 설정할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음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쾌한 자극을 가하려는 시도는 청각적인 위협을 주는 것으로 신체적 공격성에 속하므로(Dodge et al., 2006), 본 게임에서 얻은 자료는 실험 참여자의 신체적 공격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Statistics version 2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주요 연구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영차상관을 확인하였고,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하여 정신병질과 자기에 성향이 계획실패 및 자아위협 상황에서 촉발되는 공격성을 설명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때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은 분석모형에 따로 포함하였으며, 질문



지 및 CRT 행동과제로 측정된 신체적 공격성 또한 각기 다른 모형에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과 자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수균, 권석만, 2002; Archer, 2004; Björkqvist, 1994) 이를 분석의 1단계에 투입하였고, 2단계에는 무선향당 된 공격성 촉발상황(계획실패, 자아위협) 및 성격특질(정신병질 또는 자기에)을 투입하여 공격성 촉발상황과 성격특질이 각각 공격성에 미치는 주효과를 살펴보았다. 3단계는 계획실패 혹은 자아위협 공격성 촉발상황과 정신병질 혹은 자기에 성격특질의 이원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상호작용항은 각 변인을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구성하였으며, 상호작용이 유의한 경우, Aiken, West와 Reno(1991)의 단순기울기분석을 통해 그 양상을 확인하였다.

한편 행동을 통해 공격성을 평가하는 CRT 과제의 경우, 소음의 강도와 지속기간이 공격성을 의미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와 일관되게 CRT 과제에서 하나의 공격성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총 25회 동안 참여자들이 설정한 소음의 강도와 지속기간의 평균을 구하여 두 값을 합산하였다(Ferguson & Rueda, 2009).

## 결 과

###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

상관 분석 결과, 정신병질 성향은 질문지로 측정된 신체적 공격성,  $r = .34, p < .01$ , 그리고 언어적 공격성,  $r = .23, p < .01$ , 과 모두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정신병질 성향이 높을수록 CRT 과제를 수행할 때 소음의 강도,  $r = .21, p < .01$ , 및 지속기간,  $r = .20, p < .01$ , 을 더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자기에 변인은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 중 어느 것보다도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질문지로 측정된 신체

표 1. 변인들 간의 상관 및 기술 통계치

	1. 성별	2. 자존감	3. 정신병질	4. 자기에	공격성			
					5. 신체적 (AQ-K)	6. 언어적 (AQ-K)	7. CRT-강도	8. CRT-기간
1.	1							
2.	-.07	1						
3.	-.09	-.34**	1					
4.	-.04	.46**	-.00	1				
5.	-.11	-.25**	.34**	-.13	1			
6.	-.13	-.12	.23**	.08	.32**	1		
7.	-.14*	.02	.21**	.05	.34**	.09	1	
8.	-.13	.02	.20**	.02	.28**	.06	.90**	1
M	--	29.94	27.75	15.32	21.67	17.71	5.35	5.23
SD	--	4.65	6.39	5.77	6.86	3.02	2.70	2.66

주. 성별 = 1 남자, 2 여자. 신체적 공격성(AQ-K), 언어적 공격성(AQ-K) = 질문지로 측정된 공격성; 공격성(CRT-강도) = CRT 과제로 측정된 소음의 크기; 공격성(CRT-기간) = CRT 과제로 측정된 소음의 지속기간.

\* $p < .05$ . \*\* $p < .01$ .

적 공격성은 CRT 행동과제를 통해 측정된 공격성인 CRT-강도,  $r = .34, p < .01$ , 와 CRT-기간,  $r = .28, p < .01$ , 과 약한 정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에 대한 정신병질 및 촉발상황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에 대한 정신병질 성향과 공격성 촉발상황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표 2. 신체적 공격성(AG-K)에 대한 정신병질 및 촉발상황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신체적 공격성(AG-K)			
		<i>b</i>	$\beta$	$R^2$	$\Delta R^2$
1단계	성별	-.38	-.26	.08**	.08**
	자존감	-1.78	-.13**		
2단계	성별	-1.36	-.10	.15**	.07**
	자존감	-.23	-.16*		
	촉발상황	-.51	-.08		
	정신병질	.31	.29**		
3단계	성별	-1.37	-.10	.16**	.01
	자존감	-.21	-.14*		
	촉발상황	-.55	-.08		
	정신병질	.32	.30**		
	정신병질x촉발상황	-.13	-.12		

주. 성별 = 1 남성, 2 여성, 촉발상황 = 1 자아위협, -1 계획실패.  
\* $p < .10$ . \*\* $p < .05$ .

표 3. 행동과제로 측정된 신체적 공격성(CRT)에 대한 정신병질 및 촉발상황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신체적 공격성(CRT)			
		<i>b</i>	$\beta$	$R^2$	$\Delta R^2$
1단계	성별	-.74	-.14	.02	.02
	자존감	.00	.01		
2단계	성별	-.61	-.12	.08**	.06**
	자존감	.04	.08		
	촉발상황	.33	.13		
	정신병질	.08	.21**		
3단계	성별	-.61	-.12	.08**	.00
	자존감	.05	.08		
	촉발상황	.32	.12		
	정신병질	.09	.21**		
	정신병질x촉발상황	-.02	-.06		

주. 성별 = 1 남성, 2 여성, 촉발상황 = 1 자아위협, -1 계획실패.  
\* $p < .10$ . \*\* $p < .05$ .

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신병질 성향이 질문지로 측정된 신체적 공격성 및 언어적 공격성, 그리고 CRT 과제를 통해 측정된 신체적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하여 확인하기 위해 각각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총 세 개의 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촉발상황의 유형(계획 실패, 자아위협)과 관계없이, 정신병질 성향은 공격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질문

표 4. 언어적 공격성(AQ-K)에 대한 정신병질 및 촉발상황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언어적 공격성(AQ-K)			
		<i>b</i>	$\beta$	$R^2$	$\Delta R^2$
1단계	성별	-.82	-.14	.03*	.03*
	자존감	-.08	-.13		
2단계	성별	-.69	-.11	.07**	.04*
	자존감	-.03	-.05		
	촉발상황	-.20	-.07		
	정신병질	.10	.21**		
3단계	성별	-.68	-.11	.08**	.01
	자존감	-.03	-.04		
	촉발상황	-.21	-.07		
	정신병질	.10	.22**		
	정신병질x촉발상황	-.05	-.10		

주. 성별 = 1 남성, 2 여성, 촉발상황 = 1 자아위협, -1 계획실패.  
\* $p < .10$ . \*\* $p < .05$ .

표 5. 언어적 공격성(AG-K)에 대한 자기에 및 촉발상황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언어적 공격성(AG-K)			
		<i>b</i>	$\beta$	$R^2$	$\Delta R^2$
1단계	성별	-.82	-.14	.03*	.03*
	자존감	-.08	-.13		
2단계	성별	-.82	-.14	.05*	.02
	자존감	-.13	-.20*		
	촉발상황	-.08	-.03		
	자기에	.08	.16*		
3단계	성별	-.93	-.15*	.10**	.05**
	자존감	-.11	-.16*		
	촉발상황	-.08	-.03		
	자기에	.07	.13		
	자기에x촉발상황	.11	.22**		

주. 성별 = 1 남성, 2 여성, 촉발상황 = 1 자아위협, -1 계획실패.  
\* $p < .10$ . \*\* $p < .05$ .

지로 측정된 신체적,  $\beta = .30, p < .01$ , 및 언어적 공격성,  $\beta = .22, p < .01$ , 그리고 CRT로 평가한 신체적 공격성,  $\beta = .21, p < .01$ , 모두에서 일관

되게 나타났다. 성별 및 자존감의 효과를 통제된 뒤 정신병질의 주효과가 설명한 증분도 모두 유의하였다. 각각의 설명량은 질문지로 측정된 신체

표 6. 신체적 공격성(AG-K)에 대한 자기에 및 촉발상황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신체적 공격성(AG-K)		
		<i>b</i>	$\beta$	$R^2$
1단계	성별	-1.78	-.13	.08**
	자존감	-.38	-.26**	
2단계	성별	-1.79	-.13	.08**
	자존감	-.36	-.25**	
	촉발상황	-.27	-.04	
	자기에	-.02	-.02	
3단계	성별	-1.84	-.13	.08**
	자존감	-.35	-.24**	
	촉발상황	-.26	-.04	
	자기에	-.03	-.03	
	자기에x촉발상황	.05	.05	

주. 성별 = 1 남성, 2 여성, 촉발상황 = 1 자아위협, -1 계획실패.  
\* $p < .10$ . \*\* $p < .05$ .

표 7. 행동과제로 측정된 신체적 공격성(CRT)에 대한 자기에 및 촉발상황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신체적 공격성(CRT)		
		<i>b</i>	$\beta$	$R^2$
1단계	성별	-.74	-.14	.02
	자존감	.00	.00	
2단계	성별	-.72	-.14	.05
	자존감	-.01	-.02	
	촉발상황	.40	.16*	
	자기에	.02	.05	
3단계	성별	-.78	-.15*	.06*
	자존감	.00	.00	
	촉발상황	.41	.16*	
	자기에	.01	.02	
	자기에x촉발상황	.06	.13	

주. 성별 = 1 남성, 2 여성, 촉발상황 = 1 자아위협, -1 계획실패.  
\* $p < .10$ . \*\* $p < .05$ .

적 공격성,  $\Delta R^2 = .07, p < .01$ , 언어적 공격성,  $\Delta R^2 = .04, p < .01$ , CRT, 행동과제로 측정된 공격성,  $\Delta R^2 = .06, p < .01$ , 과 같다.

**공격성에 대한 자기에 및 촉발상황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에 대한 자기에와 촉발상황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고자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에가 높을수록 언어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는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beta = .16, p < .05$ . 또한 촉발상황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기에와 촉발상황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2, p < .01$ . 상호작용효과의 구체적 양상을 단순기울기분석(Aiken et al., 1991)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자아위협 촉발상황에서는 자기에가 높을수록 언어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beta = .13, p < .01$ , 계획실패 촉발상황에서는 자기에와 언어적 공격성 간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beta = .07, p > .05$ .

신체적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자기에와 촉발상황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살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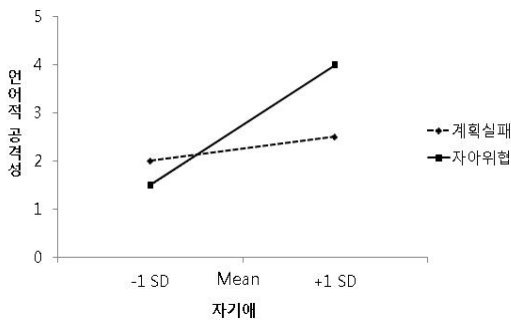


그림 1. 자기에와 촉발상황의 상호작용효과

보았을 경우, 통제변인인 자존감의 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총 설명량은,  $\Delta R^2 = .08, p < .01$ , 로 유의하였다. 자기에 및 촉발상황 조건을 투입했을 때 추가적인 설명량은 없었으며,  $\Delta R^2 = .00, p > .05$ , 여전히 자존감의 주효과만이 유의하였다,  $\beta = -.24, p < .01$ . CRT 행동과제로 측정된 공격성에 대한 자기에와 촉발상황의 주효과, 상호작용효과도 마찬가지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예외적으로 촉발상황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beta = .16, p < .05$ .

**논 의**

본 연구는 공격성 발현양상 및 기제가 성격 특질에 따라 다른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격성 촉발상황을 계획실패와 자아위협으로 나누어, 각 상황에서 정신병질 또는 자기에와 개인의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높을수록 계획실패 및 자아위협 상황 모두에서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질문지 및 행동과제로 측정된 공격성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정신병질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공격성 유형을 구분하여 연구하지 않았거나(Forth, Hart, & Hare, 1990; Hare & McPherson, 1984) 연구에 포함된 참여자들의 성비가 동등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Coyne & Thomas, 2008; Falkenbach et al., 2008). 본 연구는 남녀 성비를 동등하게 맞추으로써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공격행동을 신

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으로 세분화하여 공격성 발현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신병질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좌절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가설을 경험적으로 지지하며(Cale & Lilienfeld, 2006; Zillmann & Weaver, 2007) 목표달성에 실패하는 상황 및 개인의 자아가 위협되는 상황 모두에서 높은 공격성을 발현한다는 선행 연구와 일관된다(Blair, 2010; Cornell et al., 1996). 이는 정신병질을 구성하는 두 가지 하위요인(Hare, 1991)을 바탕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하위요인은 대인관계 및 정서적 측면과 관련되는데, 정신병질 성향이 높은 사람은 웅장한 자기상을 가졌기 때문에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만한 태도를 보이며, 그들의 웅장한 자아를 타인이 위협하면 공격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 하위요인은 충동성으로, 정신병질이 높은 사람은 계획이 예상치 못하게 어긋나 보상을 얻지 못하게 되면 분노나 좌절감을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공격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자아위협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공격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때 공격성은 언어적인 수단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가설 역시 지지되었다. 자아위협 상황에서 자기가 높은 사람의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하며(Barry, Chaplin, & Grafeman, 2006; Bushman & Baumeister, 1998; Jones & Paulhus, 2010), 자아가 위협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기가 높은 사람의 공격성이 발현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와도 일관된다(Jones & Paulhus,

2010; Twenge & Campbell, 2003). DSM-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의 진단 기준에 의하면 자기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과대하게 지각하며 타인에게 그들에 대한 찬사를 요구한다. 이때 타인으로부터 찬사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타인이 그들의 자아를 위협했다고 느끼면, 불안정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격행동을 드러낸다(Baumeister et al., 1996; Menon et al., 2007).

이 때 정신병질과 달리 자기애는 언어적 공격성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가 높은 사람의 공격행동을 신체적, 언어적으로 구분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외 소수의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나타나 자기가 높은 사람은 언어적 공격성이 높다는 것이 시사되었다(서수균, 권석만, 2002; McCann & Biaggio, 1989). 이는 자아위협 상황에서 자기가 높은 사람은 언어를 사용하여 그들의 위협받은 자아를 방어하고, 그들의 자아를 위협한 상대의 자아를 향해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위협받은 자아에 대해 대처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자기가 높은 사람은 일상에서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는 충동성이 낮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게 여겨지는 신체적 공격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서수균, 권석만, 2002; Joens & Paulhus, 2011; McCann & Biaggio, 1989).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정신병질과 자기애를 같은 표본을 사용하여 연구함으로써 공격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성격특질인 정신병질과 자기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공격성과 관련된 여러 성격특질을 함께

포함하지 않았으며, 이는 자칫 표본의 차이를 성격특질의 차이로 잘못 판단하게 하는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공격성을 촉발하는 좌절상황의 특징을 세분화하여 성격특질과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장점이 있다. 전통적으로 좌절상황에서 정신병질이 높은 사람은 공격행동을 나타낼 것이라고 가정되어 왔으나 경험연구가 대체로 부족하고 일부 존재하는 연구 역시 교도소 내의 수감자 등 특수 표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었다. 자기에 역시 공격성과 관련 있는 성격특질로 연구되어 왔으나 대부분 자아위협 상황에서 공격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Bushman & Baumeister, 1998; Martinez et al., 2008; Twenge & Campbell, 2003) 자아가 위협되지 않는 좌절상황에서의 공격행동 유무나 그 양상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는 정신병질 및 자기에 성격특질이 공격성을 보이는 데 좌절상황의 특성, 즉 자아에 대한 부정적 평가정보의 포함 여부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존의 이론적 제안(Bushman & Baumeister, 1998)을 경험적으로 검증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을 따로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들 공격성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본 연구결과에서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의 상관은 유의했으나 그 크기가 작은 편으로,  $r = .32, p < .01$ , 공격행동의 두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지지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자기에와 언어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밝혔는데, 이는 일부 선행연구에서 자기에와 공격성 간 유의한 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이유가 언어적 공격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

능성을 제안한다(Baughman, Dearing, Giammarco, & Vernon, 2012; Falkenbach, Howe, & Falki, 2013; Ponder, 1999). 공격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 발현되지 않는 공격행동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기도 한다 (Trivers, 1972). 언어적으로 전달되는 공격성 또한 그 빈도나 결과가 가볍지 않으므로(McCann & Biaggio, 1989; Jones & Paulhus, 2011) 이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Baughman et al., 2012) 본 연구에서도 자기에와 공격성의 상관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자존감의 효과를 통제한 뒤에는 자기에적 특질이 언어적 공격성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는 자기에를 구성하는 요소 중 일부는 자존감과 관련이 있으며(본 연구에서 자기에와 자존감 간 상관,  $r = .46, p < .01$ ) 이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자기에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예상하지 못한 흥미로운 결과가 확인되었다. 독립변인으로 자기에와 공격성 촉발상황을 투입하였던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인이 CRT 공격성일 때 참여자들은 계획실패보다 자아위협 상황에서 소음의 강도와 지속시간을 높게 설정하였다. 즉 촉발상황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촉발상황을 묘사한 시나리오의 내용과 직접적 공격성(direct aggression) 및 전위된 공격성(displaced aggression)의 구분을 토대로 해석이 가능하다. 직접적 공격성은 자신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대상에게 공격성을 발현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전위된 공격성

은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무고한 제 3자를 향해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Dollard et al., 1939).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계획실패 시나리오는 참여자들의 분노를 느끼게 할 만한 분명한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반면에, 자아위협 시나리오는 그들에게 발생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명백한 가해자, 즉 자신의 자아를 위협한 대상이 존재하였다. 분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보다 더욱 강한 분노를 느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획실패가 아닌 자아위협 상황에서 CRT 행동과제에서의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났을 수 있다(Bushman & Baumeister, 1998). 한편 정신병질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공격성 유발조건의 효과를 상쇄할 만큼 CRT 공격성에 대한 정신병질의 설명력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단지 공격행동의 발현을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왜 특정한 상황 하에서 공격행동이 나타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 탐색 및 추측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임상적 시사점을 가진다. 공격성의 기제와 관련하여 정신병질 및 자기에 성격특질 중 웅장한 자기상 및 충동성이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시사된다. 공격성의 기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격 행동이 문제시되는 개인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임상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공격 행동이 문제시 되어 의뢰된 내담자를 대상으로 개입한다면 성격의 어떤 특징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본 연구의 표본은 일반 대학생이기에

연구의 결과를 임상 집단에게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성격장애란 어떠한 성격 특징의 연속선상에서 극단치(outlier)에 속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반사회 및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내담자에게서 나타나는 공격행동을 이해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진단기준에는 도달하지 않으나 정신병질 및 자기에 성격특질이 높은 준임상군에게서도 공격 행동이 문제시 될 수 있다(Bushman & Baumeister, 1998; Falkenbach et al., 2008). 그러한 준임상군에게서 나타나는 공격행동에 대해서도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의 자아위협이 유능감(competence)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Besser과 Priel(2010)의 연구에서 자기애를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로 구별하였을 때 개인의 유능감이 위협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노 감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자기애와 관련된 공격성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각할 수 있는 자아위협 맥락에 초점을 맞추었고 DSM-5(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의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기준과 유사한 외현적 자기애를 초점으로 하였다. 정신병질 및 자기애를 유능감 위협과 관련하여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정신병질 및 자기애가 높은 사람의 공격 행동에 대한 이해를 더욱 확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정신병질 및 자기에 성격특질의 공통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론적으로 정신병질 및 자기에 성



격특질은 오만함, 냉담함, 착취적인 대인관계 양상 등의 특징을 공유하며, 높은 공격성을 나타낸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기도 하였다(Jones & Paulhus, 2010; Lau & Marsee, 2013). 추후 연구에서 두 성격특질의 공통요인 중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기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측정하여 규명하는 것은 공격행동에 대한 두 성격특질의 공통적, 차별적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정신병질 및 자기에 성격특질과 촉발상황 간의 조합이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권석만, 서수균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87-501.
- 길주현, 오경자 (2008). 자기에의 세부특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911-924.
- 김영운, 이은진, 김범준 (2011). 대학생의 자기에, 우울과 정신병질 성향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1), 97-113.
-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외현적, 내현적 자기에의 자기평가와 정서특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55-266.
- 서수균, 권석만 (2002).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09-826.
- 양지은, 장문선, 소준현, 곽호완 (2011). 정신병질 성향군의 정서처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2), 357-375.
- 이수정, 공정식 (2007). 일반논문: 정신병질에 따른 국내 살인범들의 살인행위 특성분석. *한국경찰학회보*, 13, 203-225.
- 이은진, 김영운, 김범준 (2010). 대학생의 자기에 성향이 정신병질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447-468.
- 이지영, 황순택 (2011). 경계선과 반사회성 성격병리에서의 충동성과 공격성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1), 71-92.
- 전병제 (1974). 자아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 논총*, 11(1), 107-130.
- 정남운 (2001). 과민성 자기에 척도(The 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 한수정 (1999). 자기에적 성격지향자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iken, L. S., West, S. G., & Reno, R. R.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lif: Sage Pub.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Pub.
- Anderson, C. A., & Bushman, B. J. (2002). Human aggres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27-51.
- Archer, J. (2004).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in real-world settings: A meta-analytic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8(4), 291-322.
- Barry, C. T., Chaplin, W. F., & Grafeman, S. J. (2006). Aggression following performance feedback: The influences of narcissism, feedback valence, and comparative standar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1), 177-187.
- Baughman, H. M., Dearing, S., Giammarco, E., & Vernon, P. A. (2012). Relationships between bullying behaviours and the Dark Triad: A study with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2(5), 571-575.
- Baumeister, R. F., Bushman, B. J., & Campbell, W. K. (2000). Self-esteem, narcissism, and

- aggression: Does violence result from low self-esteem or from threatened egotis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1), 26-29.
-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1), 5-33.
-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eger, J. I., & Vohs, K. D. (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1), 1-44.
- Besser, A., & Priel, B. (2010). Grandiose narcissism versus vulnerable narcissism in threatening situations: Emotional reactions to achievement failure and interpersonal rejec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9(8), 874-902.
- Björkqvist, K. (1994). Sex differences in physical, verbal, and indirect aggression: A review of recent research. *Sex roles*, 30(3-4), 177-188.
- Blackburn, R., & Lee-Evans, J. M. (1985). Reactions of primary and secondary psychopaths to anger evoking situation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2), 93-100.
- Blair, R. J. R. (2010). Psychopathy, frustration, and reactive aggression: the role of 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101(3), 383-399.
- Bobadilla, L., Wampler, M., & Taylor, J. (2012).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are associated with different physiological and personality profil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1(5), 458-487.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1), 219-229.
- Bushman, B. J., & Saults, J. S. (2006). The competitive reaction time (CRT) measure of laboratory aggression [online]. Retrieved from <http://uk.groups.yahoo.com/group>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452-459.
- Cain, N. M., Pincus, A. L., & Ansell, E. B. (2008). Narcissism at the crossroads: Phenotypic description of pathological narcissism across clinical theory, social/personality psychology, and psychiatric diagno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4), 638-656.
- Cale, E. M., & Lilienfeld, S. O. (2006). Psychopathy factors and risk for aggressive behavior: A test of the "threatened egotism" hypothesis. *Law and human behavior*, 30(1), 51-74.
- Cason, H. (1948). The attitudes of the psychopat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3), 276-281.
- Cleckley, H. (1976). *(The) mask of sanity*. Saint Louis: The C. V. Mosby.
- Cornell, D. G., Warren, J., Hawk, G., Stafford, E., Oram, G., & Pine, D. (1996). Psychopathy in instrumental and reactive violent offend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4), 783-790.
- Coyne, S. M., & Thomas, T. J. (2008). Psychopathy, aggression, and cheating behavior: A test of the Cheater - Hawk hypothe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5), 1105-1115.
- Dodge, K. A., Coie, J. D., & Lynam, D. (2006).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youth. In N. Eisenberg, W. Damon, & R. M.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6th ed., Vol. 3, pp. 719-788). Hoboken, NJ, US: John Wiley & Sons Inc.
- Dollard, J., Miller, N. E., Doob, L. W., Mowrer, O. H., & Sears, R. R. (1939). *Frustration and*

- aggress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Emmons, R. A. (1987). Narcissis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11-17.
- Falkenbach, D. M., Howe, J. R., & Falki, M. (2013). Using self-esteem to disaggregate psychopathy, narcissism, and agg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4*(7), 815-820.
- Falkenbach, D., Poythress, N., & Creevy, C. (2008). The exploration of subclinical psychopathic subtypes and the relationship with types of agg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4), 821-832.
- Farrar, K., & Krcmar, M. (2006). Measuring state and trait aggression: A short, cautionary tale. *Media Psychology*, *8*(2), 127-138.
- Ferguson, C. J., & Rueda, S. M. (2009). Examining the validity of the modified Taylor competitive reaction time test of aggression.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5*(2), 121-137.
- Forth, A. E., Hart, S. D., & Hare, R. D. (1990). Assessment of psychopathy in male young offenders. *Psychological Assessment: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3), 342-344.
- Hare, R. D. (1991).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Manual*. Toronto, Canada: Multi-Health Systems, Incorporated.
- Hare, R. D., & McPherson, L. M. (1984). Violent and aggressive behavior by criminal psychopath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7*(1), 35-50.
- Horton, R. S., & Sedikides, C. (2009). Narcissistic responding to ego threat: When the status of the evaluator matters. *Journal of Personality*, *77*(5), 1493-1526.
- Infante, D. A. (1995). Teaching students to understand and control verbal aggression. *Communication Education*, *44*(1), 51-63.
- Jones, D. N., & Paulhus, D. L. (2010). Different provocations trigger aggression in narcissists and psychopath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1), 12-18.
- Jones, D. N., & Paulhus, D. L. (2011). The role of impulsivity in the Dark Triad of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1*(5), 679-682.
- Kuppens, P., & Van Mechelen, I. (2007). Interactional appraisal models for the anger appraisals of threatened self-esteem, other-blame, and frustration. *Cognition and Emotion*, *21*(1), 56-77.
- Lau, K. S., & Marsee, M. A. (2013). Exploring narcissism, psychopathy, and Machiavellianism in youth: Examination of associations with antisocial behavior and aggress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2*(3), 355-367.
- Levenson, M. R., Kiehl, K. A., & Fitzpatrick, C. M. (1995). Assessing psychopathic attributes in a noninstitutionalized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1), 151-158.
- Levy, K. N. (2012). Subtypes, dimensions, levels, and mental states in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8*(8), 886-897.
- Martinez, M. A., Zeichner, A., Reidy, D. E., & Miller, J. D. (2008). Narcissism and displaced aggression: Effects of positive, negative, and delayed feedback.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1), 140-149.
- McCann, J. T., & Biaggio, M. K. (1989). Narcissistic personality features and self-reported anger. *Psychological Reports*, *64*(1), 55-58.
- Menon, M., Tobin, D. D., Corby, B. C., Menon, M., Hodges, E. V., & Perry, D. G. (2007). The Developmental Costs of High Self Esteem for Antisocial Children. *Child Development*, *78*(6),

- 1627-1639.
- Moeller, F. G., Dougherty, D. M., Lane, S. D., Steinberg, J. L., & Cherek, D. R. (1998).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nd alcohol induced aggression.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2(9), 1898-1902.
- Mohan, V., Singh, P., & Singh, J. (2009). Aggression and narcissism: Validating relationship in Indian context. *Pakista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7(1), 55-64.
- Patrick, C. J. (2005). *Handbook of Psychopathy*. New York: Guilford Press.
- Patrick, C. J., Cuthbert, B. N., & Lang, P. J. (1994). Emotion in the criminal psychopath: fear image processing.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3), 523-534.
- Paulhus, D. L., & Williams, K. M. (2002). The dark triad of personality: Narcissism, Machiavellianism, and psychopath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6(6), 556-563.
- Ponder, J. I. (1999). *An investigation of psychopathy in a sample of violent juvenile offenders* (Doctoral dissertation). ProQuest Information & Learning, USA.
- Raskin, R. N.,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2), 590.
- Rhodewalt, F., Madrian, J. C., & Cheney, S. (1998). Narcissism, self-knowledge organization, and emotional reactivity: The effect of daily experiences on self-esteem and affec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1), 75-87.
- Rosenberg, M. (1965). The measurement of self-estee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p. 16-36).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aylor, S. P. (1967). Aggressive behavior and physiological arousal as a function of provocation and the tendency to inhibit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35(2), 297-310.
- Thomaes, S., Bushman, B. J., De Castro, B. O., & Stegge, H. (2009). What makes narcissists bloom? A framework for research on the etiology and development of narcissism.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4), 1233-1247.
- Trivers, R. (1972). Parental investment and sexual selection. In B. Campbell (Ed.), *Sexual selection and the descent of man* (pp. 136-179). Chicago: Aldine-Atherton.
- Twenge, J. M., & Campbell, W. K. (2003). "Isn't it fun to get the respect that we're going to deserve?" Narcissism, social rejection, an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2), 261-272.
- Werner, N. E., & Crick, N. R. (1999). Relational aggression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in a college samp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8(4), 615-623.
- Zillmann, D., & Weaver, J. B., III. (2007). Aggressive personality traits in the effects of violent imagery on unprovoked impulsive aggress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1(4), 753-771.

원고접수일: 2018년 6월 14일

논문심사일: 2018년 6월 28일

게재결정일: 2018년 10월 29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8. Vol. 23, No. 4, 903-923

---

# The Effects of Psychopathy and Narcissism on Aggression in the Context of Frustration

Sangah Lee

Korea University Medical Center

Hyein Chang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associations between personality traits (i.e., psychopathy and narcissism) and aggression in the context of frustration. The frustration-provoking situations were divided into ego-threatening or achievement-failure, depending on whether or not negative evaluative self-information were involved, and the associations between psychopathy and narcissism levels and types of aggression were examined in each context. A total 192 undergraduate students completed a set of questionnaires psychopathy, narcissism and self-esteem. Subsequently,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plan failure or ego-threat situation, and were asked to read a scenario that described respective frustration event. Physical and verbal aggression were then measured using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and the Competitive Reaction Time Task. Results from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s revealed that, higher levels of psychopathy associated with levels of physical and verbal aggression in both plan failure and ego-threat situations. Additionally, high levels of narcissism led to high levels of verbal aggression in the ego-threat situation. Theoretical and clinical implications as well as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words: Psychopathy, Narcissism, Physical Aggression, Verbal Aggression*